東大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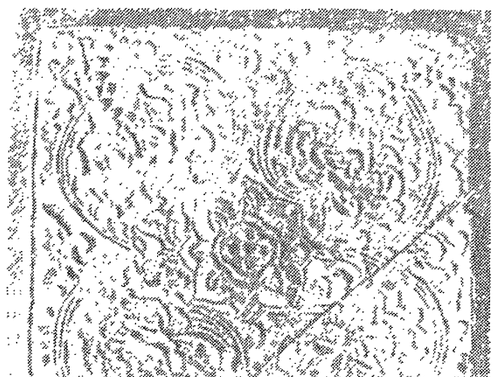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主幹 宋赫
編輯部長 李相拳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 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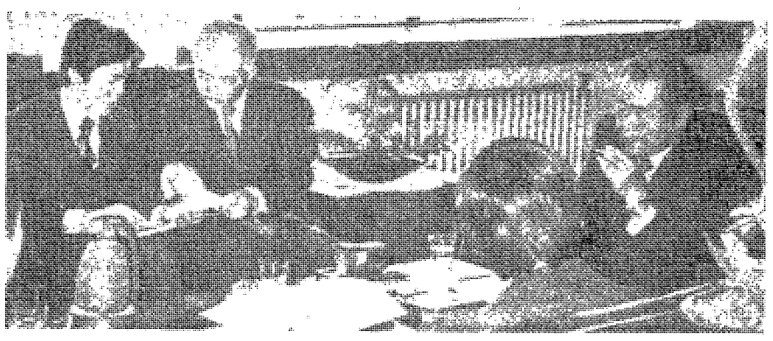
每週火曜日發行

八萬大藏經 새긴 禪源寺址 發見

28日, 本校 江華島 學術調査團 凱歌



◇禪源寺址에서 발견된 梵字기와<上>와 導紋華磚 <下>



◇記者會見光景

本校 江華島學術調査團은 3월10일 發團以來 문헌조사를 마치고 지난21일 (예비조사) 과 28일 (1차조사) 두차례에 걸쳐 仙源面 智山里 부근을 조사하던 중 신지동 (드갑마을) 에서 버뉘모의 寺址를 발견하고, 아울러 高麗時代것으로는 뛰어난 寶相華紋塼과 梵字기와 치미 (용마루에 얹는 동물상) 등 많은 遺物도 수습했다.

본래 禪源寺址가 仙源面 智山里 부근으로 기록된 문헌은 高麗末의 禪刹 「禪源寺」 址가 李瑄根總長을 團長으로한 本校 江華島學術調査團의 관심긴 노력으로 발견되었다. 禪源寺址는 文獻上의 거리로 따져 보아도 이번 발견된 장소에 해당되고 山이름과 마을 이름도 대장경도감을 나타내 주며 과거의 기와 치미 (용마루에 얹는 동물상) 등이 이곳이 禪源寺의 중심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부근에는 수많은 기와파편과 다수의 주춧돌·석재·梵字기와등 다수의 物的증거까지 발견되어 조사단은 禪源寺址로 확정한것이다.

고려시대에 八萬大藏經板을 새기고 保藏했던 大藏都監寺刹이며 忠烈王때 宮城을 겸했던 高麗最大의 禪刹 「禪源寺」 址가 李瑄根總長을 團長으로한 本校 江華島學術調査團의 관심긴 노력으로 발견되었다. 禪源寺址가 발견된 곳은 江華郡 仙源面 智山里 도갑마을로 江華邑 남쪽 3·5㎞에 있다. 29일 오후 3시 總長室에서 李瑄根總長은 黃壽永博物館長과 文明大尊任講師가 배석한 신문기자회견에서 『東國與地勝覽』과 江華府志를 토대로 江華邑內의 都監山밑 인삼밭에서 옛절의 주춧돌과 화려한 寶相華紋塼(梵字) 가 새겨진 기와 치미 (용마루에 얹어 놓은 동물상) 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 잃어버린 八萬大藏經板의 都監寺刹인 禪源寺터일을 밝혔다. 李總長은 八萬大藏經板의 조造가 對蒙抗爭時 國難克服의 民族的인 의지를 집약시킨 민족적聖業이였음을 상기시키고 都監寺刹인 禪源寺는 정신적거점이므로 寺址의 발견은 역사적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國難克服의 精神的據點

內海로 大藏經木板運搬推定

寶相華紋塼·梵字기와등收拾

李瑄根總長과 學生代表間의 月例懇談會가 지난 27일 오후2시 本館 小會議室에서 3處長과 企劃室長 및 學徒護國團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李瑄根總長은 이자리에서 지난 26일 열린 金國大學總學長會議의 중요사항 5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骨子는 大學의 敎學분위기 조성, 敎授陣活用 관계로인한 결원의 신속한 충원, 大學院의 건실한 運營, 護國團運營의 內實化및 학원새마을운동의 추진등이였다.

이자리에서 李總長은 開校70周年을 起點으로 東國中興의 새歷史를 創造하자고 말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協助와 參與를 促求했다.

師閥長 장동탁(敎外·4)군은 학도호국단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開校70周年사업으로 梵鐘주조 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해 많은 바람이 있었다.

이어 교수 김상일(敎外·4)군은 학생활동을 통한 민족적 각성과 재활군인회관을 매입하여 그것으로 정문을 세워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이에 대해 李總長은 "영동지역 관계가 확실하면 本校가 매입할 것은 이라고 말하고 후문 폐쇄는 그 이용도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大學發展計劃 세미나에서는 발전계획전체에대해 민병권企劃室長은 10개년 계획안을 완성하고 각부문별로 발전계획이 구현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李總長은 開校70周年기념행사의 대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5월8일까지 高麗大藏經 影印本 47권을간행하고 마지막48권 (Index 및 해설) 을 6월초까지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月例行事計劃으로는 5천의 개교기념일을 기점으로 기념행사70年史간행, 大藏經 影印本 完刊, 醫學大典, 高校놀구대회, 세계國際館大會에 초점을하여 佛書中心의 도서전시회, 세계불교학술대회 개최, 敎育問題심포지움, 불교미술전시회등이라고 말했다.

梵鐘造成計劃밝혀

勉學雰圍氣刷新·內實化당부

開校70周年 行事計劃도 發表

李總長、學生代表 懇談會

李瑄根總長과 學生代表間의 月例懇談會가 지난 27일 오후2시 本館 小會議室에서 3處長과 企劃室長 및 學徒護國團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李瑄根總長은 이자리에서 지난 26일 열린 金國大學總學長會議의 중요사항 5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骨子는 大學의 敎學분위기 조성, 敎授陣活用 관계로인한 결원의 신속한 충원, 大學院의 건실한 運營, 護國團運營의 內實化및 학원새마을운동의 추진등이였다.

이자리에서 李總長은 開校70周年을 起點으로 東國中興의 새歷史를 創造하자고 말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協助와 參與를 促求했다.

師閥長 장동탁(敎外·4)군은 학도호국단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開校70周年사업으로 梵鐘주조 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해 많은 바람이 있었다.

이어 교수 김상일(敎外·4)군은 학생활동을 통한 민족적 각성과 재활군인회관을 매입하여 그것으로 정문을 세워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이에 대해 李總長은 "영동지역 관계가 확실하면 本校가 매입할 것은 이라고 말하고 후문 폐쇄는 그 이용도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大學發展計劃 세미나에서는 발전계획전체에대해 민병권企劃室長은 10개년 계획안을 완성하고 각부문별로 발전계획이 구현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李總長은 開校70周年기념행사의 대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5월8일까지 高麗大藏經 影印本 47권을간행하고 마지막48권 (Index 및 해설) 을 6월초까지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月例行事計劃으로는 5천의 개교기념일을 기점으로 기념행사70年史간행, 大藏經 影印本 完刊, 醫學大典, 高校놀구대회, 세계國際館大會에 초점을하여 佛書中心의 도서전시회, 세계불교학술대회 개최, 敎育問題심포지움, 불교미술전시회등이라고 말했다.

教養學部 月曜講座

29日 李殷相先生 講演

敎養學部 (學部長=李丙疇 博士) 에서 실시하는 月曜講座가 지난 29일 오전9시 靈山 李殷相선생의 「忠武公의 節槪와 東國大生의 자세」 란 주제아래 中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선생李殷相은 佛敎經典과 亂中日記를 인용하면서 바람직한 東大生의 자세와 호국정신을 강조하였다.

司法考試에 4名合格

金熙玉同門등 二次에

本校 金熙玉同門 (74·법과) 과 玄天旭 (대학원1·법과), 郭賢洙 (행정대학원1·財務行政), 具本盛 (행정대학원1·人事行政) 군등 4명이 제18회 司法考試 2차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1월21일에 실시된 1차시험과 2월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2차시험에서 부단히 합격한 이들은 오는 4월14일 면접을 거쳐 16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남겨두고있다.

玄天旭, 郭賢洙, 具本盛군은 다같이 서울大 졸업, 금년에 본교 대학원에 입학했었다.

◇金熙玉同門

◇玄天旭

◇郭賢洙

教生實習申請

1日부터8日까지 接受

교무과에서는 76학년도敎生실습신청을 오는 1일부터 8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사범대생과, 교직과정을 이수한 77년도 졸업예정자로 실습을 원하는 학생은 이 기간중 신청서와 실습비 1만2천원 및 실習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師大生은 사대학장 실習·非師大生은 교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은 4月23, 24兩日間이며 교생실습기간은 4월26일부터 5월15일로 사대부속중고교와 병설학교 등지서 실시된다.

노래와 長技가득히

新入生 歡迎會 電氣科팀등 受賞

新入生 歡迎會가 지난25日(水) 오후 1시부터7시까지 中央講堂에서 新入生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성대히 열렸다.

환영식에서 李瑄根總長은 격려사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勞學을 병행하는 獨立하고 浪漫이 가득한 大學生活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BC의 「젊음을가득히」 의 공개방송에 이어 長技자랑에서는 20여개팀이 출연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특별상 (최우수상) 에는 電氣科의 정준식군등 7명이 차지, 트로피, 상패및 부상을 받았다.

가수상은 장상중군이 차지, 수상자들은 극영화과생들에게돌아갔다.

◇중강당에서 열린 新入生한영회광경.

對話의 要諦

印度神話가운데는 무수한 神들이 등장한다. 神들이라고 하지만 먼모두 무척 인간적인 면모를지니고 있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고 싸움을하며 男神이 있는데는 女神이 따른다. 한 마디로 人間을 거대하게 확장해놓은 것이 印度의 神들이라고할수 있다. 이 神格은 인간에 속하는것으로 「낙크」 (말씀) 라는 것이 있었다. 이 「말씀」 은 우주창조의 원리로서 모든 것 萬有에 遍在하는 存在로 절명되고 있다. 이 말씀의 3/4은 天上界에 속하고 1/4만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고한다. 「말씀」 이 창조의 원리라고 하니 기독교의 「太初의 말씀」과도 비교해 볼 만한 대목이 많다. 天上의 4분의3을 생각하는 것이다. 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王께서 賢君로서의 對話를 원한다면 응할수있지만 帝王의 권위로 대화를 원한다면 응할 수 없읍니다』고 했다. 이때 王은 賢君로서의 대화는 무엇이고 帝王으로서의 對話는 무엇을 말하는가 물었다. 나가셔나스님은 『賢者의 대화는 서로 비판되고 수정되고 반박당하는 경우가 있어도화를 내지 않으나 帝王의 주장하고 그것만을 밀고나가며 그의 뜻을 따르지 않을때, 왕의 권위로 처벌하고 하였다. 우리주변에수많은 對話들이 있어도이 화가 얽나나 있는지 말의 사박속에서 반성되는 점이 적지않다.

〈李珉容〉

今週一言

愛喜生憂,
愛喜生畏.
無所愛喜,
向憂何畏.

사랑(親愛)으로부터 걱정이 생기고 사랑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이 없는곳에 걱정이없거나 또 어디에 두려움이 있겠는가?

<法句經>

電算院31日 開講

29日 入學式마쳐

76학년도 電子計算院(院長=錢昌源博士)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지난29일 G건물5층 특강실에서 개최됐다.

입학식을 마친 電算院生들은 수업에 대한 상세한 오리엔테이션과 교과서를배부받고 31일부터 강의에들어갔다.

〈開講記事3面〉

봄맞이美容講座

皮膚管理등講義

여학생대여 (大隊長=林成淑·家政4) 주최 「봄맞이미용강좌」가 지난 27일 오전11시 玉耶室에서열렸다. 「피이리스」 화장품주식회사의 협찬으로 열린 미용사원 확정순서가 복철의 피부관리와 여대생의 화장법에대한 이론과 실제를 했다.

이 자리에는 여학생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강좌가 끝난후에는 화장품샘플과 동회사에서발간하는 미용잡지 「아미」 배부도있었다. 여학생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師大敎職科目特講

4月初부터實施

敎員 순위고사 대비 師大敎職科目特講이 오는 4月초부터 오전중에 (7時50分부터) 1시간에 걸쳐 (J 101에서) 실시된다.

講師는 師大 敎育學科교수진이 담당하며 敎材등은 추후 공지된다.

民防衛隊 1次敎育

李總長·閔室長강연

76년도 본교 직장민방위 제1차 교육이 지난27일오전10시부터 교수실에서 민방위 대원인 교직원 1백6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내용은 첫째시간에 敎授 李瑄根 총장의 「민방위와 유신」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둘째시간에는 副隊長인 민병권 기획실장의 「安保」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開校70周年奬學基金

◇3月27日現在·◇接受=師大學長室

▲金錫永 (체육관·1만원) ▲趙炳實 (〃·〃) ▲金光浩 (보건소·1만5천원) ▲許燦 (〃·〃) ▲李海琴 (〃·2만원) ▲李相植 (農大교수·2만원) ▲金昌浩 (〃·〃) ▲金興培 (〃·〃) ▲洪淳鈺 (法政大교수·3만원) ▲申基珍 (〃·〃) ▲李東東 (〃·3만원) ▲金炳哲 (〃·〃) ▲金昌熙 (〃·2만원) ▲金鍾泰 (農大교수·2만원) ▲張光福 (〃·〃) ▲朴庚鎭 (〃·〃) ▲徐基榮 (〃·〃) ▲金愛子 (佛大교수·2만원) ▲金鍾益 (〃·3만원) ▲徐京保 (〃·5만원) ▲金昌熙 (〃·2만원) ▲黃壽永 (〃·5만원) ▲金昌熙 (〃·3만원) ▲徐京保 (〃·3만원) ▲李瑄根 (〃·〃) ▲朴庚鎭 (〃·〃) ▲徐基榮 (〃·〃) ▲金愛子 (佛大교수·2만원) ▲金鍾益 (〃·3만원) ▲洪錫祿 (〃·〃) ▲金錫敏 (〃·2만원) ▲陳政哲 (〃·3만원) ▲權相範 (〃·〃) ▲朴鍾規 (〃·〃) ▲徐廷甲 (〃·〃) ▲李鍾勝 (〃·〃) ▲徐基榮 (〃·〃) ▲金愛子 (佛大교수·2만원) ▲金鍾益 (〃·〃) ▲權相範 (〃·〃) ▲李海琴 (〃·2만원) ▲李東東 (〃·3만원) ▲申基珍 (〃·〃) ▲趙炳實 (〃·〃) ▲李東東 (〃·2만원) ▲金炳哲 (〃·〃) ▲金昌熙 (〃·2만원) ▲金鍾泰 (農大교수·2만원) ▲張光福 (〃·〃) ▲朴庚鎭 (〃·〃) ▲徐基榮 (〃·〃) ▲金愛子 (佛大교수·2만원) ▲金鍾益 (〃·3만원) ▲洪錫祿 (〃·〃) ▲金錫敏 (〃·2만원) ▲陳政哲 (〃·3만원) ▲權相範 (〃·〃) ▲朴鍾規 (〃·〃) ▲徐廷甲 (〃·〃) ▲李鍾勝

社說

校內造景의 促進

昨今에 들어서 金權界가 造景問題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그것은 이 나라를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物質의生産을 위하여는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영관된 勝者의 길로 되어있는 産業社會에서 인간을 구출하는 길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美化가 생산활동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것이 반성되어 가고 있는 까닭이다.

매일같이 발표되는 우울한 公害記事와 코를 찌르는 亞黃酸가스속에 살을 이어야하는 都市人에게는 唯一의 神經鎭靜作用을 하는 가로수마저 시들어져 가는 現代에서 물질적인 충족이나 그 生産의 優越만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다는 것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는 것은 말할것도없다.

太大學이 75學年度에 造景學科를 新設하여 이 分野의 開拓에 學問的인 理論定立과 그 効率的 運營을 敎授하고 있는 것도 바로 現代에 들어서 人類가 겪어야하는 이와같은 苦痛을 緩和하여 眞正한 意味에서의 幸福한 生活을最高度로 追究하며 멸망하가는 現世代의將來에 貢獻하여보려는데 있다고 하겠다.

産業構造가 뒤떨어져 있는 우리나라같은 社會에서도 造景問題가 이미 深刻한 社會問題의 하나로 擡頭되었으나 이와같은 造景問題가 더 緊迫한 것은 知·情·意의 世界를 고루成長시키는 것이 理想으로 되어 있는學園의 造景事業이라고하겠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도 最末端까지 인간의 임김과 손길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이제는 산업사회에 영향받아 無味乾燥한 도시가운데에 줄은 校地를 최고도로 활용한다는 功利心에서 林立하는 高層校舍에 威壓感마저 느끼며 量産되는 각급학교의 졸업생은 知的方面은 모르되 情的이나 意的面에서 후퇴되고 있는 것은 숨지나지 않는 현실이다. 극히 일부에는 學生層의 행동이 그原因의 一部가 정서교육의 缺乏에 있다고하며 어떤 빗가를 지불하더라도 현비교육이 광범하고 있는 이와같은 비극을 하루 속히 해결할때가 왔다 추어야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本大學의 경우는 옛부터 韓國의 名山으로 손꼽혀 빛나는 天燕山 南山기슭에 자리잡고있어 朝夕으로 진광하며 潛然의 無視와 四季의變化에 따르는 山水의 千態萬狀을 만끽할수있어 서정적인 生活을 누리는 점에 있어서는 都下의 어느 大學에 비하여도 多等스럽은 일이 때에 따라 往年에는 一尺앞을 透視할수 없었던 울창한 樹林地帶도 시멘트로 築造된 시설물로 바뀌어지고 미처 포장되지 못한 부분은 露出되어 건조기에는 黃塵 殺風景한 정경을 보이는일도 가끔 눈에띄게되었다.

금년하는 발전에 비례하여 부득이 걱어야할 自然美의 破壞現象이 本大學의 구역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물론 한정된 大學의 可用地를 유용하게 活用한다는것에 있어 이러한 現象은 어쩔수없이 불가피한 것이라 하겠지만 그 영곡 지속적인 成長이 가능하여 졸업만을 사상이다. 그러므로 企業公開라함은 일반대중에의 株式의 資本調達도 할방하여 집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투자의 욕도 점차 고조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證券市場의 여건이 轉機를 맞게되어 안정적인 企業資本調達을 바랄수있는 길이 마련되었음을 다행한 일이 아닐수없다고 하겠다.

1、序

우리나라 企業發展을 阻害시키는 가장 重大한 문제는 企業資本의 財務構造의 不健全에 있다는 것을 否認하는 기업가는 없을 것이다. 그와같은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키는데는 기업의 자본조달체제의 近代化에 있다고 하겠는데 그것이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음은 事實이다.

지난 1~2次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행을 통하여 國民經濟는 실질적으로 성장하였고 資本市場의 여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에 副應하여야할 기업의 資本調達體制가 그러하지 못한것도 사실이다. 그와같은 불합리한 체제가 반드시 改善되고 近代化되어 재무구조가 건전해져야 한다는 課題는 오늘날 우리나라 企業이 當面하고 있는 중요하고도 時急한 問題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政府에서는 企業資本의 長期安定 資金의 能率구축하기 위하여 資本市場(證券市場)을 육성하고 企業公開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企業公開促進法및 同法施行令을制定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인데 그결과 자본시장의 기능은 많이 개선되였고 또 株式의 公募와 會社債의 발행에 의한 資本調達도 활발하여 일반국민들의 투자의 욕도 점차 고조되어 오는에 이르러서는 證券市場의 여건이 轉機를 맞게되어 안정적인 企業資本調達을 바랄수있는 길이 마련되었음을 다행한 일이 아닐수없다고 하겠다.

2、우리나라 企業 資本調達의 現況

車 均 澤 〈經商大敎授〉

우리나라 企業의 資本調達形式은 株式에 의한 自己資本調達과 증권을 두지 아니하고 金融에만 의존하고있는 경향이 많으므로 우리는 금융적으로 이루어 할 企業公開는 企業家의 그와같은 고질적인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기업자본의 조달을 發行市場을 通한 株式에 의하여 지금까지의 證券市場의 育成策을 더욱 강화하여 成長一路에 있는 기업의 장하여 解決한 육 하여 國民大衆의 건전한 企業參與에의 길을 더욱 擴大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3、企業公開의 必要性

企業公開가 되면 企業측에서는 自己資本에 의한 長期安定資金의 조달이 용이하여지므로 企業資本의 재부구조는 개선되어 기업은 안정된 기반위에 서게될 뿐만아니라 勞使關係도 개선되어 企業과 國民과의 일체감도 더욱 밀하여질 것이라는 국민에서 企業의 社會的 經濟的 의의도 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企業資本의 재부구조는 결코 일개인의 利益만으로는 成長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일반대중에의 한 國民資本의 펼발침이되는 국민의 기업이되어 합리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成長이 가능하여 질것이다. 그러므로 企業公開라함은 일반대중에의 株式의 資本調達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업의 자본조달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기업자본의 조달을 發行市場을 通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일반대중에의 株式의 資本調達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업의 자본조달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기업자본의 조달을 發行市場을 通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일반대중에의 株式의 資本調達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업의 자본조달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기업자본의 조달을 發行市場을 通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라는 뜻이다.

4、企業公開를 阻害하는 問題點

우리나라 기업은 자기 資本의 현저한 부족때문에 기업의 자본운용에 큰 장애를 가져 오고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基本計劃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골자는 1971년부터 2010년까지 기업공개의 연발될것이다. 그 주요골자는 1971년부터 2010년까지 기업공개의 연발될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자기 資本의 현저한 부족때문에 기업의 자본운용에 큰 장애를 가져 오고있다.

5、政府에서의 企業公開 促進策

기업분개록진법및 동법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삼림피해를 매울 태우고있다. 주로 인위적인원인으로 이와

龍樹의 中論

世界의 名著散策 (9)

1、概觀

佛滅後 7백년경 즉 明 2世紀경에 南印度에서 출생한 龍樹(Nagarjuna)는 般若經의 理論을 해설했으며, 大智度論, 中論, 十二門論, 十住毘婆沙論과 같은 다수의 論을 著述하므로써 千部의 論師라고 불리워진다.

그의 代表作은 中論이며 뒤로 그의 思想은 中觀思想이라고 불리워진다. 이 中觀思想은 般若의 空思想을 論理的으로 體系化한 것인바 大乘佛敎思想의 핵심이 된다. 물론 無著과 世親을 중심으로하여 展開된 唯識思想이 있기는하지만 論理展開方式은 龍樹의 中論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처럼 中觀思想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佛敎를 理解해보려는 의도를 가진 西歐의 宗敎學者나 哲學者들에게도 중심원는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했다.

今世紀의 위대한 哲學者 「K·야스퍼스」도 그의 近代서적 「偉大한 哲學者」 제1권에 佛陀와 아울러 龍樹를 게재하고 있다. 또한 美國의 宗敎學者 「E·스트링」도 「Emptiness」라는 제목으로 龍樹의 中論을 번역하고 이에 주석을 붙인 것이 있다.

2、中論의 中心思想

中論의 中心思想은 흔히 「八不中道」라는 말로 要約된다. 여기서 「八不中道」라는 말로 「八不」과 「中道」라는 말은 모든 有所得의 見解를 打破함을 뜻한다. 즉 婆羅門敎에 대해서는 實我의 見解(物과 我는 각각 實體가 있다는 見解)를 破하고, 俱舍宗(小乘)에 대해서는 人空法有의 邪見(我는 實體가 없으나 客觀世界에는 實體가 있다는 見解)을 破하고, 成實宗에 대해서는 人法二空(主觀과 客觀이 모두 實體가없다는 空에 執着한 見解)을 破하고, 法相宗에 대해서는 非有非空의 中道를 認定하는 有所得의 謬見을 破하여 空도 또한 空한(空亦後空) 畢竟空, 言語道斷 心行處滅의 絶對無所得의 境地를 보이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모든 有所得見을 破한 絶對無所得見이 곧 圓正이며 또한 正見임과 동시에 實相인 第一義諦라고 하는 것이다. (註1)

또한 八不中道說에서는 「生滅」「斷常」「一異」「來出」의 여덟가지 모순되는 槪念들을 낱낱이 否定하므로서 中道實相을 들어내고자하는 方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면 「生」의 槪念을 네가지 경우를 생각할수 있는데 그 어느 경우에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즉 「自生」「共生」「因緣和合生」의 네 가지 경우를 따나서 보는데 「生」이라는 槪念은 성립할 수 없는데 어느 경우에도 「生」이라는 槪念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自生」의 경우에는 生하는것 즉 能生과 생겨난것(若人不能知 分別於二諦則於深佛法 不得第一義 즉 현 知眞實義若不依俗諦 不得第一義) 즉 眞實을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스퍼스는 말하기를 「그 自體가 空한 法을 思惟하려라도 世間的인 轉倒된 見解를 받아들여 그 전도된 認識에 참여함과 동시에 그 전도된 認識에서 벗어나게 하는데에 있다」(註2)고 하였다. 이는 俗諦와 眞諦에 대해서 말하는 龍樹의 의도를 해석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龍樹는 俗諦와 眞諦를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것은 宗敎的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본래 實相이 그와 같다는것을 看破한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眞諦는 現象界를 떠나서 空의 世界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現象界 그대로가 因緣和合에 의한 것이므로 自性이 없고 自性이 없으므로 空한것이라고 본것이다. 그러기에 空도 또한 空하다고 龍樹는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내가 空에 집착 했으므로 잘못이라고 하지만 실은 空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것이 아니다」(註3)고 했다. 靑目은 이에대해 해석하기를 「너는 내가 空에 집착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說하는바 空性은 空도 또한 空한 것이므로 이와같을 허물이 없다」(註4)고 하였다.

3、中論敎說의 意義

야스퍼스는 龍樹의 中論에 대해서 몇가지 착안점을 지닌것이 보인다. 첫째 中論의 思想이 佛陀의 敎說을 가장 잘 繼承하고 있는것이다. 왜냐하면 佛陀의 初期說法인 四聖諦 즉 苦集滅道의 理想은 苦의 완전한 극복에 있었고 苦가 實體를 지닌 存在라면 이를 극복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思考된것 表象된것, 存在하는것 모두가 空하므로써 四聖諦는 비로소 가능한 敎說이 됨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龍樹의 敎說이 實修를 통한 깨달음에로 인도하기 위한것이라고 규정된 可知的 內容에 의해서는 파악될수 없다. 왜냐하면 眞理는 論理的으로 규정된 감각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眞理는 論理的 分析은 思考의 展開속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洞見에의 展開이기 때문에 他者에 의해서 증명하게 沈默하는 존비이며 또한 인체의 論證되어진것을 排棄하는것이라고 한다. (註5) 그 예로써 遠塵大師가 세사람의 弟子를 試驗함에서 眞可得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는 古事를 들었다.

셋째는 龍樹의 思想은 純粹에 있다는 觀點이다. 즉 眞理는 思惟되어진것이나 言表되어진것의 自己同一性이나 止揚을 통해서 개시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龍樹는 形而上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佛陀가 敎說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 存在論的 問題定立을 거부했다는것이 용납이라고 한다.

다섯째는 완전한 覺知의 境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야스퍼스는 佛陀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나의 눈으로보면 왕후의 위엄도 헛됨에 비추이는 티끌과같고, 나의 눈으로 보면, 世界에 있는 幾千의 體系는 거지처럼 같다…나의 눈으로 보면 열반은 낮과 밤의 수면(睡眠)과 같고, 나의 눈으로 보면, 여러학파의 誤謬와 진리는 六回의 龍의 변보와 같다.」

이처럼 諸法의 束縛으로부터의 解脫을 통해서 世界존재를 이해하려는 點에서 西洋 槪念論과 유사한 點이 있다고 한다. 즉 佛敎에서도 因果의 形式을 가지고 있으며 根本識 또는 種子識에 對應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칸트」의 先驗的 認識論은 경험되어진 對象에대한 先驗的 또는 範疇 認識 구조를 말하는데 반하여 불교의 槪念論은 世界는 둘과 같고 허망한 것이라하여 世界에대한 認識과 執着을 단념시키는것을 正常化하고 있다고 한다.

세째 空을 無限히 廣大하므로서 寬容性을 띄게되며 非鬪爭的으로 되는것은 사실이지만, 西洋人과 같이 理性을 절대적인것으로가 아닌 自己의 實存을 발아들이는데 사용하여 世界의 歷史性속에서 歷史的 현실과일체가 되는 面이 부족하다고 본다.

네째 龍樹의 論理形式에 있어서 外現象界를 西洋的인 것과 유사한 點이 있으나 根本的인 태도에 있어서 相違點이 있다고 한다. 即 世界와 우리자신에 대해서 無關心하게 하므로서 非人格的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해하는 면가지 관점을 대학 보아왔다. 결국 야스퍼스는 龍樹中論의 핵심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서구적 思惟방법의 조명을 통해서 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관찰은 매우 날카로우서 쉽게 반박할수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양적인 思惟전통에 따라 평가지 이외를 제기해 볼수는 있을것이다.

첫째 야스퍼스는 龍樹가 불교의 高僧이라는 先見을 가졌다. 即 龍樹의 전체 이론은 佛陀를 변호하고 위해서 쓰여졌다는것을 전제하고보았다. 그것을 사실임 과 진실을 수동으로 받아들인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도 창의적으로 깊이 이해하여 자기자신의 思想化. 마라서 용수의 이론은 받지만 그러나 그안에서 용수의 이론은 닫지 않고 지양하려는 수단으로서가 아닌 實相의 통찰이라고 이해할수도 있다. 즉 외적 현상세계이건 주관적 관념이건 獨立的인 실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음을 論破한 것이다.

둘째 탄순한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그안에서는 절대긍정의 생명력이 약동하고 있음을 볼수있다. 왜냐하면도 思念과 觀念 또는 견해에 의해 이것이 없는 「마음」이야말로 보다 淸淨하고 자유로우며 걸림없는 「참 생명」「참 나」

註1=「불교의 이론과 역사」(P-18 6~187) 참조
註2=佛陀와 龍樹」 峰島旭雄 譯P68
註3=佛敎思想論叢」「中觀思想」(眞興)
註4=前揭書
註5=「佛陀와龍樹」 P73~74
註6=前揭書 P96~97

金恒培
〈佛大哲學科專任講師〉

俗諦와 眞諦의 洞察을 强調
破邪顯正등 中心思想
佛陀敎說의 充實한 註解書

大明文
〈佛大美術科專講〉

都監寺刹禪源寺址發見記
—本校 江華島 學術調査團

○本校 江華島 學術調査團
○長=李瑄根總長, 副團長=黃濬○
○永 博物館長)은 江華郡○
○仙源面 智山里 도감마을에서○
○高麗의 對蒙抗爭때 八萬大藏經○
○雕造地요 또 忠烈王 때의 宮○
○城을 겸하였던 高麗最大의 禪○
○刹 禪源寺址를 發○
○見하고 아울러 寶相華紋塼과○
○梵字기와, 치미(용마루에 얹○
○던 物像) 등 많은 遺物도 수○
○집하였다.

本校 江華島 學術調査團은 民族의 傳統精神이 깃들인 고장이요 民族의 전통문화를 守護, 開發한 지역이며, 國難克服의 歷史적인 거점이었던 江華島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지난 3월10일 調査團을 구성한후 첫 조사사업으로 강화도 일대를 조사하던중 禪源寺址를 발견, 확인하게된 것이다. 禪源寺址가 仙源面 智山里에 있다는것을 알년준 文獻 江都府志에 의하면 즉 東國輿地勝覽에는 「선원사의 옛터는 강화읍의 남쪽 8里에 있는데 지금은 菜苑園의 果樹園이 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江都府志 「仙」으로 고쳐 仙源里라는 지명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 도감마을은 원래 仙源里인데 江華邑에서 남쪽으로 약 10리 못미쳐있으며, 마을앞과 그 뒷산은 大藏經都監에서 유래한 것인데 또한 옛 과수원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筆者는 이 점에 착안하여 지난 3월21일 豫備調査를 정밀한 調査(美術·3), 金載一(〃), 皮閏錫(〃·2), 金昌均(〃)등 佛敎美術科學生 4명과 이 부근을 답사하던중 신지동 도감마을) 도감산록(俗稱 신돈산)에서 거창한 규모의 큰 사찰을 발견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28일에는 本調査團長 李瑄根總長과 委員一同이 現地에서 이를 확정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절을 흔히 「신돈이 절」로 부르고, 뒷산을 「신돈산」 또는 도감산으로 알고 있었을 뿐인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 절터는 동국여지승람 이 전해주고있는 禪源寺의 옛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리로 따져 보아도 이 장소에 해당될뿐 아니라 산이름과 마을이름도 대장경도감을 나타내 주며 과수원이 있다는 말과 高麗末의 風塵僧 辛旽의 전설까지 있으며 또한 거창한 규모의 큰 사찰 요 특히 고려의 가장 뛰어난 寶相華紋塼과 梵字기와등 다수의 物的 증거까지 발견되어 조사단은 선원사지로 확정한 것이다.

◇禪源寺址: 人蔘밭과 마을一帶가 寺址이고 멀리보이는 內海가 배로 大藏經木板을 운반하던곳.

지금은 옛 모습의 일부는 사라지고 탑조차 2년 전 인삼밭을 개간하면서 날아있던 寺址一部의 주춧돌까지 제거하여 폐허가 되었지만 절터와 그 규모는 찾아낼 수 있었다. 都監山을 끼고 동남향한 분지 일대가 모두 절터로 전하고 있으며 특히 마을이 들어서 있는 도감산록에는 축대가 3段으로 되어 있어 이곳이 禪源寺의 중심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근에는 수많은 기와片과 다수의 주춧돌, 長大石, 磁器片들이 散在해있으며 동남쪽으로 바라보면 2백여m지점에서부터 內湖가 펼쳐져고 남서쪽으로는 멀리 낮은 丘陵로 이어지는 매우 경치 좋은 곳이다. 이 호수는 옛날에는 배가 드나들던 바다로서 바로 大湖인데 멀리 晋州에서 배로 大藏經木板을 실고 大藏經都監으로 오던 이곳 禪源寺까지 운반했던것이 분명했다.

對蒙抗爭의 精神的 支柱
寶相華紋塼등 遺物도 發見
八萬大藏經 雕造·保藏한 곳

點이었음을 또한 立證해 준다. 특히 1290年 忠烈王 16년에는 당시 몽고에 반기를 들었던 哈丹軍이 침입하자 왕은 또다시 강화도로 제2차의 遷都를 하여 2년 간이나 머물었는데이때 이 禪源寺가 바로 왕이 거주하던 임시 宮城이 되었던 것은 유명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대장경 大藏經을 雕造하고 保管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즉 忠宣王 때 大藏都監인 禪源寺에 쌓 3백석을 내린다고 하였던 記事로 보아 이곳이 大藏經雕造地요 保管地였음이 분명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이 절의 뒷산 이 都監山이요 마을도 도감이며 또한 옛날에는 배가 이곳까지 출입했다고 생각 되었으므로 더욱 신빙성이 짚어지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무자비한 몽고족을 물아내기 위해 국력을 총동원하여 한편서 팔만여 천 것이고 이런 대역사를 완성한 것이다. 즉 「自知眞實義若不依俗諦 不得第一義」 즉 현실적인 모든 현상을 해설했으며, 大智度論, 中論, 十二門論, 十住毘婆沙論과 같은 다수의 論을 著述하므로써 千部의 論師라고 불리워진다.

그의 代表作은 中論이며 뒤로 그의 思想은 中觀思想이라고 불리워진다. 이 中觀思想은 般若의 空思想을 論理的으로 體系化한 것인바 大乘佛敎思想의 핵심이 된다. 물론 無著과 世親을 중심으로하여 展開된 唯識思想이 있기는하지만 論理展開方式은 龍樹의 中論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처럼 中觀思想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佛敎를 理解해보려는 의도를 가진 西歐의 宗敎學者나 哲學者들에게도 중심원는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했다.

今世紀의 위대한 哲學者 「K·야스퍼스」도 그의 近代서적 「偉大한 哲學者」 제1권에 佛陀와 아울러 龍樹를 게재하고 있다. 또한 美國의 宗敎學者 「E·스트링」도 「Emptiness」라는 제목으로 龍樹의 中論을 번역하고 이에 주석을 붙인 것이 있다.

2、中論의 中心思想

中論의 中心思想은 흔히 「八不中道」라는 말로 要約된다. 여기서 「八不中道」라는 말로 「八不」과 「中道」라는 말은 모든 有所得의 見解를 打破함을 뜻한다. 즉 婆羅門敎에 대해서는 實我의 見解(物과 我는 각각 實體가 있다는 見解)를 破하고, 俱舍宗(小乘)에 대해서는 人空法有의 邪見(我는 實體가 없으나 客觀世界에는 實體가 있다는 見解)을 破하고, 成實宗에 대해서는 人法二空(主觀과 客觀이 모두 實體가없다는 空에 執着한 見解)을 破하고, 法相宗에 대해서는 非有非空의 中道를 認定하는 有所得의 謬見을 破하여 空도 또한 空한(空亦後空) 畢竟空, 言語道斷 心行處滅의 絶對無所得의 境地를 보이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모든 有所得見을 破한 絶對無所得見이 곧 圓正이며 또한 正見임과 동시에 實相인 第一義諦라고 하는 것이다. (註1)

또한 八不中道說에서는 「生滅」「斷常」「一異」「來出」의 여덟가지 모순되는 槪念들을 낱낱이 否定하므로서 中道實相을 들어내고자하는 方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면 「生」의 槪念을 네가지 경우를 생각할수 있는데 그 어느 경우에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즉 「自生」「共生」「因緣和合生」의 네 가지 경우를 따나서 보는데 「生」이라는 槪念은 성립할 수 없는데 어느 경우에도 「生」이라는 槪念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自生」의 경우에는 生하는것 즉 能生과 생겨난것(若人不能知 分別於二諦則於深佛法 不得第一義 즉 현 知眞實義若不依俗諦 不得第一義) 즉 眞實을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스퍼스는 말하기를 「그 自體가 空한 法을 思惟하려라도 世間的인 轉倒된 見解를 받아들여 그 전도된 認識에서 벗어나게 하는데에 있다」(註2)고 하였다. 이는 俗諦와 眞諦에 대해서 말하는 龍樹의 의도를 해석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龍樹는 俗諦와 眞諦를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것은 宗敎的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본래 實相이 그와 같다는것을 看破한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眞諦는 現象界를 떠나서 空의 世界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現象界 그대로가 因緣和合에 의한 것이므로 自性이 없고 自性이 없으므로 空한것이라고 본것이다.

이나 言表되어진것의 自己同一性이나 止揚을 통해서 개시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龍樹는 形而上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佛陀가 敎說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 存在論的 問題定立을 거부했다는것이 용납이라고 한다.

다섯째는 완전한 覺知의 境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야스퍼스는 佛陀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나의 눈으로보면 왕후의 위엄도 헛됨에 비추이는 티끌과같고, 나의 눈으로 보면, 世界에 있는 幾千의 體系는 거지처럼 같다…나의 눈으로 보면 열반은 낮과 밤의 수면(睡眠)과 같고, 나의 눈으로 보면, 여러학파의 誤謬와 진리는 六回의 龍의 변보와 같다.」

이처럼 諸法의 束縛으로부터의 解脫을 통해서 世界존재를 이해하려는 點에서 西洋 槪念論과 유사한 點이 있다고 한다. 즉 佛敎에서도 因果의 形式을 가지고 있으며 根本識 또는 種子識에 對應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칸트」의 先驗的 認識論은 경험되어진 對象에대한 先驗的 또는 範疇 認識 구조를 말하는데 반하여 불교의 槪念論은 世界는 둘과 같고 허망한 것이라하여 世界에대한 認識과執着을 단념시키는것을 正常化하고 있다고 한다.

세째 空을 無限히 廣大하므로서 寬容性을 띄게되며 非鬪爭的으로 되는것은 사실이지만, 西洋人과 같이 理性을 절대적인것으로가 아닌 自己의 實存을 발아들이는데 사용하여 世界의 歷史性속에서 歷史的 현실과일체가 되는 面이 부족하다고 본다.

네째 龍樹의 論理形式에 있어서 外現象界를 西洋的인 것과 유사한 點이 있으나 根本的인 태도에 있어서 相違點이 있다고 한다. 即 世界와 우리자신에 대해서 無關心하게 하므로서 非人格的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해하는 면가지 관점을 대학 보아왔다. 결국 야스퍼스는 龍樹中論의 핵심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서구적 思惟방법의 조명을 통해서 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관찰은 매우 날카로우서 쉽게 반박할수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양적인 思惟전통에 따라 평가지 이외를 제기해 볼수는 있을것이다.

첫째 야스퍼스는 龍樹가 불교의 高僧이라는 先見을 가졌다. 即 龍樹의 전체 이론은 佛陀를 변호하고 위해서 쓰여졌다는것을 전제하고보았다. 그것을 사실임 과 진실을 수동으로 받아들인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도 창의적으로 깊이 이해하여 자기자신의 思想化. 마라서 용수의 이론은 받지만 그러나 그안에서 용수의 이론은 닫지 않고 지양하려는 수단으로서가 아닌 實相의 통찰이라고 이해할수도 있다. 즉 외적 현상세계이건 주관적 관념이건 獨立的인 실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음을 論破한 것이다.

둘째 탄순한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그안에서는 절대긍정의 생명력이 약동하고 있음을 볼수있다. 왜냐하면도 思念과 觀念 또는 견해에 의해 이것이 없는 「마음」이야말로 보다 淸淨하고 자유로우며 걸림없는 「참 생명」「참 나」

註1=「불교의 이론과 역사」(P-18 6~187) 참조
註2=佛陀와 龍樹」 峰島旭雄 譯P68
註3=佛敎思想論叢」「中觀思想」(眞興)
註4=前揭書
註5=「佛陀와龍樹」 P73~74
註6=前揭書 P96~97

金恒培
〈佛大哲學科專任講師〉

俗諦와 眞諦의 洞察을 强調
破邪顯正등 中心思想
佛陀敎說의 充實한 註解書

大明文
〈佛大美術科專講〉

都監寺刹禪源寺址發見記
—本校 江華島 學術調査團

○本校 江華島 學術調査團
○長=李瑄根總長, 副團長=黃濬○
○永 博物館長)은 江華郡○
○仙源面 智山里 도감마을에서○
○高麗의 對蒙抗爭때 八萬大藏經○
○雕造地요 또 忠烈王 때의 宮○
○城을 겸하였던 高麗最大의 禪○
○刹 禪源寺址를 發○
○見하고 아울러 寶相華紋塼과○
○梵字기와, 치미(용마루에 얹○
○던 物像) 등 많은 遺物도 수○
○집하였다.

本校 江華島 學術調査團은 民族의 傳統精神이 깃들인 고장이요 民族의 전통문화를 守護, 開發한 지역이며, 國難克服의 歷史적인 거점이었던 江華島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지난 3월10일 調査團을 구성한후 첫 조사사업으로 강화도 일대를 조사하던중 禪源寺址를 발견, 확인하게된 것이다. 禪源寺址가 仙源面 智山里에 있다는것을 알년준 文獻 江都府志에 의하면 즉 東國輿地勝覽에는 「선원사의 옛터는 강화읍의 남쪽 8里에 있는데 지금은 菜苑園의 果樹園이 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江都府志 「仙」으로 고쳐 仙源里라는 지명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 도감마을은 원래 仙源里인데 江華邑에서 남쪽으로 약 10리 못미쳐있으며, 마을앞과 그 뒷산은 大藏經都監에서 유래한 것인데 또한 옛 과수원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筆者는 이 점에 착안하여 지난 3월21일 豫備調査를 정밀한 調査(美術·3), 金載一(〃), 皮閏錫(〃·2), 金昌均(〃)등 佛敎美術科學生 4명과 이 부근을 답사하던중 신지동 도감마을) 도감산록(俗稱 신돈산)에서 거창한 규모의 큰 사찰을 발견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28일에는 本調査團長 李瑄根總長과 委員一同이 現地에서 이를 확정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절을 흔히 「신돈이 절」로 부르고, 뒷산을 「신돈산」 또는 도감산으로 알고 있었을 뿐인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 절터는 동국여지승람 이 전해주고있는 禪源寺의 옛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리로 따져 보아도 이 장소에 해당될뿐 아니라 산이름과 마을이름도 대장경도감을 나타내 주며 과수원이 있다는 말과 高麗末의 風塵僧 辛旽의 전설까지 있으며 또한 거창한 규모의 큰 사찰 요 특히 고려의 가장 뛰어난 寶相華紋塼과 梵字기와등 다수의 物的 증거까지 발견되어 조사단은 선원사지로 확정한 것이다.

◇禪源寺址: 人蔘밭과 마을一帶가 寺址이고 멀리보이는 內海가 배로 大藏經木板을 운반하던곳.

지금은 옛 모습의 일부는 사라지고 탑조차 2년 전 인삼밭을 개간하면서 날아있던 寺址一部의 주춧돌까지 제거하여 폐허가 되었지만 절터와 그 규모는 찾아낼 수 있었다. 都監山을 끼고 동남향한 분지 일대가 모두 절터로 전하고 있으며 특히 마을이 들어서 있는 도감산록에는 축대가 3段으로 되어 있어 이곳이 禪源寺의 중심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근에는 수많은 기와片과 다수의 주춧돌, 長大石, 磁器片들이 散在해있으며 동남쪽으로 바라보면 2백여m지점에서부터 內湖가 펼쳐져고 남서쪽으로는 멀리 낮은 丘陵로 이어지는 매우 경치 좋은 곳이다. 이 호수는 옛날에는 배가 드나들던 바다로서 바로 大湖인데 멀리 晋州에서 배로 大藏經木板을 실고 大藏經都監으로 오던 이곳 禪源寺까지 운반했던것이 분명했다.

對蒙抗爭의 精神的 支柱
寶相華紋塼등 遺物도 發見
八萬大藏經 雕造·保藏한 곳

點이었음을 또한 立證해 준다. 특히 1290年 忠烈王 16년에는 당시 몽고에 반기를 들었던 哈丹軍이 침입하자 왕은 또다시 강화도로 제2차의 遷都를 하여 2년 간이나 머물었는데이때 이 禪源寺가 바로 왕이 거주하던 임시 宮城이 되었던 것은 유명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대장경 大藏經을 雕造하고 保管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즉 忠宣王 때 大藏都監인 禪源寺에 쌓 3백석을 내린다고 하였던 記事로 보아 이곳이 大藏經雕造地요 保管地였음이 분명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이 절의 뒷산 이 都監山이요 마을도 도감이며 또한 옛날에는 배가 이곳까지 출입했다고 생각 되었으므로 더욱 신빙성이 짚어지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무자비한 몽고족을 물아내기 위해 국력을 총동원하여 한편서 팔만여 천 것이고 이런 대역사를 완성한 것이다. 즉 「自知眞實義若不依俗諦 不得第一義」 즉 현 知眞實義若不依俗諦 不得第一義) 즉 眞實을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스퍼스는 말하기를 「그 自體가 空한 法을 思惟하려라도 世間的인 轉倒된 見解를 받아들여 그 전도된 認識에서 벗어나게 하는데에 있다」(註2)고 하였다. 이는 俗諦와 眞諦에 대해서 말하는 龍樹의 의도를 해석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龍樹는 俗諦와 眞諦를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것은 宗敎的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본래 實相이 그와 같다는것을 看破한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眞諦는 現象界를 떠나서 空의 世界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現象界 그대로가 因緣和合에 의한 것이므로 自性이 없고 自性이 없으므로 空한것이라고 본것이다.

이나 言表되어진것의 自己同一性이나 止揚을 통해서 개시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龍樹는 形而上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佛陀가 敎說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 存在論的 問題定立을 거부했다는것이 용납이라고 한다.

다섯째는 완전한 覺知의 境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야스퍼스는 佛陀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나의 눈으로보면 왕후의 위엄도 헛됨에 비추이는 티끌과같고, 나의 눈으로 보면, 世界에 있는 幾千의 體系는 거지처럼 같다…나의 눈으로 보면 열반은 낮과 밤의 수면(睡眠)과 같고, 나의 눈으로 보면, 여러학파의 誤謬와 진리는 六回의 龍의 변보와 같다.」

이처럼 諸法의 束縛으로부터의 解脫을 통해서 世界존재를 이해하려는 點에서 西洋 槪念論과 유사한 點이 있다고 한다. 즉 佛敎에서도 因果의 形式을 가지고 있으며 根本識 또는 種子識에 對應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칸트」의 先驗的 認識論은 경험되어진 對象에대한 先驗的 또는 範疇 認識 구조를 말하는데 반하여 불교의 槪念論은 世界는 둘과 같고 허망한 것이라하여 世界에대한 認識과執着을 단념시키는것을 正常化하고 있다고 한다.

세째 空을 無限히 廣大하므로서 寬容性을 띄게되며 非鬪爭的으로 되는것은 사실이지만, 西洋人과 같이 理性을 절대적인것으로가 아닌 自己의 實存을 발아들이는데 사용하여 世界의 歷史性속에서 歷史的 현실과일체가 되는 面이 부족하다고 본다.

네째 龍樹의 論理形式에 있어서 外現象界를 西洋的인 것과 유사한 點이 있으나 根本的인 태도에 있어서 相違點이 있다고 한다. 即 世界와 우리자신에 대해서 無關心하게 하므로서 非人格的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해하는 면가지 관점을 대학 보아왔다. 결국 야스퍼스는 龍樹中論의 핵심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서구적 思惟방법의 조명을 통해서 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관찰은 매우 날카로우서 쉽게 반박할수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양적인 思惟전통에 따라 평가지 이외를 제기해 볼수는 있을것이다.

첫째 야스퍼스는 龍樹가 불교의 高僧이라는 先見을 가졌다. 即 龍樹의 전체 이론은 佛陀를 변호하고 위해서 쓰여졌다는것을 전제하고보았다. 그것을 사실임 과 진실을 수동으로 받아들인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도 창의적으로 깊이 이해하여 자기자신의 思想化. 마라서 용수의 이론은 받지만 그러나 그안에서 용수의 이론은 닫지 않고 지양하려는 수단으로서가 아닌 實相의 통찰이라고 이해할수도 있다. 즉 외적 현상세계이건 주관적 관념이건 獨立的인 실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음을 論破한 것이다.

둘째 탄순한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그안에서는 절대긍정의 생명력이 약동하고 있음을 볼수있다. 왜냐하면도 思念과 觀念 또는 견해에 의해 이것이 없는 「마음」이야말로 보다 淸淨하고 자유로우며 걸림없는 「참 생명」「참 나」

註1=「불교의 이론과 역사」(P-18 6~187) 참조
註2=佛陀와 龍樹」 峰島旭雄 譯P68
註3=佛敎思想論叢」「中觀思想」(眞興)
註4=前揭書
註5=「佛陀와龍樹」 P73~74
註6=前揭書 P96~97

金恒培
〈佛大哲學科專任講師〉

俗諦와 眞諦의 洞察을 强調
破邪顯正등 中心思想
佛陀敎說의 充實한 註解書

大明文
〈佛大美術科專講〉

都監寺刹禪源寺址發見記
—本校 江華島 學術調査團

○本校 江華島 學術調査團
○長=李瑄根總長, 副團長=黃濬○
○永 博物館長)은 江華郡○
○仙源面 智山里 도감마을에서○
○高麗의 對蒙抗爭때 八萬大藏經○
○雕造地요 또 忠烈王 때의 宮○
○城을 겸하였던 高麗最大의 禪○
○刹 禪源寺址를 發○
○見하고 아울러 寶相華紋塼과○
○梵字기와, 치미(용마루에 얹○
○던 物像) 등 많은 遺物도 수○
○집하였다.

本校 江華島 學術調査團은 民族의 傳統精神이 깃들인 고장이요 民族의 전통문화를 守護, 開發한 지역이며, 國難克服의 歷史적인 거점이었던 江華島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지난 3월10일 調査團을 구성한후 첫 조사사업으로 강화도 일대를 조사하던중 禪源寺址를 발견, 확인하게된 것이다. 禪源寺址가 仙源面 智山里에 있다는것을 알년준 文獻 江都府志에 의하면 즉 東國輿地勝覽에는 「선원사의 옛터는 강화읍의 남쪽 8里에 있는데 지금은 菜苑園의 果樹園이 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江都府志 「仙」으로 고쳐 仙源里라는 지명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 도감마을은 원래 仙源里인데 江華邑에서 남쪽으로 약 10리 못미쳐있으며, 마을앞과 그 뒷산은 大藏經都監에서 유래한 것인데 또한 옛 과수원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筆者는 이 점에 착안하여 지난 3월21일 豫備調査를 정밀한 調査(美術·3), 金載一(〃), 皮閏錫(〃·2), 金昌均(〃)등 佛敎美術科學生 4명과 이 부근을 답사하던중 신지동 도감마을) 도감산록(俗稱 신돈산)에서 거창한 규모의 큰 사찰을 발견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28일에는 本調査團長 李瑄根總長과 委員一同이 現地에서 이를 확정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절을 흔히 「신돈이 절」로 부르고, 뒷산을 「신돈산」 또는 도감산으로 알고 있었을 뿐인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 절터는 동국여지승람 이 전해주고있는 禪源寺의 옛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리로 따져 보아도 이 장소에 해당될뿐 아니라 산이름과 마을이름도 대장경도감을 나타내 주며 과수원이 있다는 말과 高麗末의 風塵僧 辛旽의 전설까지 있으며 또한 거창한 규모의 큰 사찰 요 특히 고려의 가장 뛰어난 寶相華紋塼과 梵字기와등 다수의 物的 증거까지 발견되어 조사단은 선원사지로 확정한 것이다.

◇禪源寺址: 人蔘밭과 마을一帶가 寺址이고 멀리보이는 內海가 배로 大藏經木板을 운반하던곳.

지금은 옛 모습의 일부는 사라지고 탑조차 2년 전 인삼밭을 개간하면서 날아있던 寺址一部의 주춧돌까지 제거하여 폐허가 되었지만 절터와 그 규모는 찾아낼 수 있었다. 都監山을 끼고 동남향한 분지 일대가 모두 절터로 전하고 있으며 특히 마을이 들어서 있는 도감산록에는 축대가 3段으로 되어 있어 이곳이 禪源寺의 중심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근에는 수많은 기와片과 다수의 주춧돌, 長大石, 磁器片들이 散在해있으며 동남쪽으로 바라보면 2백여m지점에서부터 內湖가 펼쳐져고 남서쪽으로는 멀리 낮은 丘陵로 이어지는 매우 경치 좋은 곳이다. 이 호수는 옛날에는 배가 드나들던 바다로서 바로 大湖인데 멀리 晋州에서 배로 大藏經木板을 실고 大藏經都監으로 오던 이

文學賞 受賞同門의 나의 文學修業記 <下>

온몸으로 詩創作을

文貞姬 <現代文學 新人賞受賞·同門詩人>

『詩가 비로소 어렵다고 느껴질때 賞을 받았다.』고 現代文學社가 제정한 제21회 新人賞 詩部수상자인 文貞姬 同門은 소감을 말한다. 69년 本校 國文科 재학시절에 「月刊文學」新人賞을 수상 (作品 : 「불덤」) 하여 文壇에 데뷔한 文同門은 금년 29세의 연소 여류詩人.

詩는 항상 밝늦게쓰며 진명여고 시절부터 本校를 비롯한 各大學 白日場에서 30여회의 詩部낭선을 해 상복이 많은편. 文同門은 「그러나 쉽게, 편하게, 상식적으로란 살지는 않겠다」며 비장한 각오로 詩人으로서의 자세를 굳혔다.

最近 詩劇에 매력을느껴지난 74년에 발표한 詩劇 「나비의 탄생」을비롯 詩로서는 못다한 얘기를 詩劇이라는 그릇을 빌어 담았다. 現代文學 신인상수상 작품은 「새떼」로 1, 2, 3部로 나누어 지난 2년간 쓴 詩, 詩劇, 멋닢詞등 30여편을 싣고있다. ▲1947年 5月25日生, ▲1969년 月刊文學신인수상 (文壇데뷔), ▲70년 本校國文科卒業, ▲現在 명성여고 교사,

『詩가 비로소 어렵다고 느껴질때 賞을 받았다.』고 現代文學社가 제정한 제21회 新人賞 詩部수상자인 文貞姬 同門은 소감을 말한다. 69년 本校 國文科 재학시절에 「月刊文學」新人賞을 수상 (作品 : 「불덤」) 하여 文壇에 데뷔한 文同門은 금년 29세의 연소 여류詩人.

詩는 항상 밝늦게쓰며 진명여고 시절부터 本校를 비롯한 各大學 白日場에서 30여회의 詩部낭선을 해 상복이 많은편. 文同門은 「그러나 쉽게, 편하게, 상식적으로란 살지는 않겠다」며 비장한 각오로 詩人으로서의 자세를 굳혔다.

最近 詩劇에 매력을느껴지난 74년에 발표한 詩劇 「나비의 탄생」을비롯 詩로서는 못다한 얘기를 詩劇이라는 그릇을 빌어 담았다. 現代文學 신인상수상 작품은 「새떼」로 1, 2, 3部로 나누어 지난 2년간 쓴 詩, 詩劇, 멋닢詞등 30여편을 싣고있다. ▲1947年 5月25日生, ▲1969년 月刊文學신인수상 (文壇데뷔), ▲70년 本校國文科卒業, ▲現在 명성여고 교사,

女高生으론 最初詩集 「꽃舍」 내고

各大學 白日場에 30여회 壯元

女高時節 R·M 릴케를 읽다가 나는 잠자기 고민에 휘싸여 버렸다. 릴케는 文學을 지망하는 청년에게 주는 편지에서 대저 이런말을 하고 있었다。

<말과 밤의 가장 고요한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쓰지 않고는 못배길 죽어도못 배길 필연의 욕구가 네게 있다면 너는 이 운명에 입맹을 던져도 좋다>

나는 밤과 밤의 가장 고요한 시간에 가슴에손을 얹고 생각해보았다。 쓰지 않고는 못배기겠는가? 죽어도 못 배길 필연의 욕구가 내게도있는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것 같지 않았다.

나는 결국 릴케의말대로 한다면 文學을 할기본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다만 한가지 사실만이 분명하게 나를사로잡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많은 삶의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서 詩를 쓰면서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직를 하는 것 보다 상업을 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가진 부자보다 나는 詩를쓰면서 산다는 것이 훨씬 행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였다도 詩를 쓰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였다。

나는 낳던히 이런 생각에 나의 생 (生) 을 걸고 말았다.

내가 처음 붓을 쓰게 되었을 때 나는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오늘 이 순간까지 그 꿈은 변함없이 가벼운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는 불변성이 스며들어있다。 봄은 언제나 색깔다. 봄은 창조의 선구자이다. 無에서 흙을 창조하는 단 하나의 진리이다. 우리는 항상한 것을 찾는 한복판에서 단 하나의 진리를찾는 구한다. 우리의 나뭇이많아서 봄이 되는 것은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봄을기다렸다. 기나긴 암흑과절망을 뚫고하면서 봄을 누구보다도 많이기다렸다。

봄의 입김이 女人의옷 깃에서 물씬 풍겨온다。 오늘 이 순간 여쭈다 본 라일락의 새눈에서 힘이솟아나고 있다. 겨울잠에서 가벼워지고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위로 치솟을 것만 같다. 3월의 마지막 풋잠 추위도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고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는 봄냄새가 스며들어있다。 봄은 언제나 색깔다. 봄은 창조의 선구자이다. 無에서 흙을 창조하는 단 하나의 진리이다. 우리는 항상한 것을 찾는 한복판에서 단 하나의 진리를찾는 구한다. 우리의 나뭇이많아서 봄이 되는 것은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봄을기다렸다. 기나긴 암흑과절망을 뚫고하면서 봄을 누구보다도 많이기다렸다。

오늘도 여전히 봄스는 만끽이었다。 1년전 새로운 눈스노선 번호를 쫓을때의 팽팽했던 감동은 이제 아무 일숙해져버렸다。

가느다란 그림자들이 희미하게 내가슴 한복판을 뚜뚫고 지나갈때 나에겐 보여지는 것들이었다。 빈손에서, 무수한 잔가지에 경련했던 자숙들이 얼굴을 향해 치닫는 새로운 길, 그 새로운 길에 내가 서 있다。 그리곤 「변함」의 진리에 대하여 특백을 하고 있다。 색깔게 自然의 법칙에 순응하여 萬物이 변하고 東岳의 랜퍼스에도 새로운 흩기와 희망찬 포부가 새로움으로 가득차 있다。

내 자신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패배의식속에서 기계적인 행동으로 마치 學校로 學校에서 집으로 책가방을 운반하는 직업인같은 정체에서 무언가 조금씩 의미를 깨닫고 누구 누구 이들을 부르면서 30계단을 오르는것이 애착이 가는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철수록, 쌓을수록 많이 나는 韓國的 美을 간직한게 東岳의 랜퍼스라는 것을 느낀 때뿐이리라.

청춘에는 슬플하기만하면 랜퍼스가 이젠 情이 붙었다。 그리나 잔디밭에 돋는것이겠죠。』라고말한다。

合格소식은 邱에서 상경, 月刊「考試社」에 문의해서 알았다고。

이번 합격은 대학 재학중 처음 응시한후 2학년 합격에만 머무르다 1차 전 끝에 열매 영광。

◇略歷 1948년 慶北 慶北高校卒業。 68년 本校 法學科 入學。 72년 法學科卒業。 현재 大學院在學中。 大邱에서 農業에 종사하는 金永東 (68세) 씨의 三男。

휴게실

司法考試 合格者 金熙玉同門과 함께

◇『法曹界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資質을기르겠다』고 말하는 金同門.

오직…誠實한 生活뿐 4번의 挑戰끝에 榮光이

이번 司法考試 합격한 金熙玉同門은 2차시험에 68년本校 法學科 입학시 전체수석을 차지한 수재에다가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를 계속해온 노력파。

「天才는 99%의 노력과 1%의 靈感으로 이루어진다」는 에디슨의 명언을 몸소 합격으로써 증명해 보인 케이스다。

『한마디로 기쁘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늦게 합격하여 자부심과 여러 교수님들에 자랑스럽지 못하다』면서 겸손해 한다。

『이젠 합격했으니 2년간 정의 研修院에서 더욱더 법학공부에 심혈을 기울여 文化에 기여할수 있는 자질을 함양, 학계로 진출하는 것이 희망』이라면서 합격의 영광은 아랑곳하지 않고계속 공부하겠다고。

『고시공부의 비결은 없읍니다。 공부를 좋아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생활태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부의 生活化가 중요하다는것이겠죠。』라고말한다。

合格소식은 邱에서 상경, 月刊「考試社」에 문의해서 알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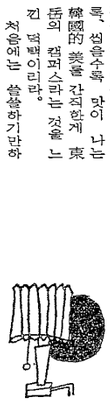
이번 합격은 대학 재학중 처음 응시한후 2학년 합격에만 머무르다 1차 전 끝에 열매 영광。

◇略歷 1948년 慶北 慶北高校卒業。 68년 本校 法學科 入學。 72년 法學科卒業。 현재 大學院在學中。 大邱에서 農業에 종사하는 金永東 (68세) 씨의 三男。

大學門을 열며

향기로운 젊음

李恩心



大學門을 열며

또하나의 사랑

敎育學部를마치고

吳炳龍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라는 나아원의 「적자생존」설」을 장엄하신 교수님의 말씀이 석굴피기만 교수에 의해 이제 나에게 되는 미지 장엄성을 인정기도전에 닫혔던 문문이 열방 문이 활짝 열었던 축제의 불꽃이 오르지 못한지 벌써 10년이 지나 代에 보다시 적응 되는 수는 간도 없이 열강하시던 교수님의 강의에나 오는 「키에르케골」의 사랑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나라는 것이 많았던 것이지 결코 후회속의 교양학부시절을 보내지 않은것 같다。 내 나름대로 느끼낀 확정을 극복한게 교양학부 시절이였고 나의 꿈을 펼쳐 발수있었던 의미, 사랑의 의미를 배운게 모한 교양학부 시절이었다。

해보고 싶었으나 해보지못한 일을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기다림속에서 만남의 설렘과 초조함과 중압감으로 나누어 심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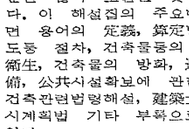
접수마감을 오는 4월 5일까지며 문의처는 전화 ㉔6161。

學窓리모델링

敎育學部를 마치고 또하나의 사랑

學史 東學

<吳知泳著·亞細亞文化社刊 242頁·값2,500원>



이 책은 1938년에 당시 永昌書館에서 출판한 바 있는데, 이번에 亞細亞文化社에서 韓國學古典 시리즈로그림印版版을 펴낸것이다. 이책에는 史學界의 泰斗였던 海圃 黃義敦頭 學의 서문이 실려있다. 그 一節을 여기에 옮겨보면 『東學篇이란 무엇인가 하면 變革이없고 改新이 없이 500여년간 일직선으로 支配하여 오던 우리 반도에 정치가 부패하고 사회가 暗黑하였으며 종교가 墮落하고 정신이 마비되었었다. 이럼때에 憂的 內的으로 그를한번 改新하여 보려고 새로운소리를 웨치고 일어난 이가 곧 水雪 崔濟愚씨다』라고 술회하고있다. 오늘날 우리의 정신개조가 절실한 이때 이책은 돌등한 龜鑑이 될것이다.

建築法解說·改正增補版

<金鎭根 等編·亞細亞文化社 376頁·값3,700원>

인간의 생활은 대부분 建築物內에서 이루어지며 國民은 직접 간접으로 건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국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건축물에대하여 國民의 人命과 재산을보호하기 위해서 建築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시행 이래 10여년이 經過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건축물의 災害나 무질서한 도시의 발전등의 문제점으로 건축물에 대한 인식적 시각에 있어 그 개선을 위한 법改正版은 종래의 미비한 부분을 많이 보완한 것이라고한다. 이 해설집의 주요내용을보면 용어의 定義, 算定방법, 제도등 절차, 건축물등의 安全, 衛生, 건축물의 방화, 避難, 設備, 公共시설확보에 관한 규정 건축관련법령해설, 建築士法, 도시계획법 기타 부록으로 되어있다.

國立中央圖書館論考

<李昌世著·亞細亞文化社刊·374頁·값2,700원>

國立中央圖書館長職을 역임한 바있는 필자가 재직시절에 직무를 통하여 계획하고 연구하였던 國立中央圖書館 운영에관한 이론을 체계화하여 정리한것이다. 이 책은 장차 도서관의 발전과 도서관 운영자로로서 意義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야흐로 도서관의 시대는到來하고 있다. 이미 세계의 一角에서는 脫工業化사회에 進入하였고 이 脫工業化社會는 정보사회이다. 정보사회의 中樞는 연구기관과 정보처리 기관으로 도서관은 情報센터로서 신세계의 중추으 제4차산업의 核心이 되고있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를 위한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의 문제점과 정책방향등을 조명, 그대책으로서 이의 定立을 시도한 것이라고 본다.

<中央圖書館 提供>

文化短信

기타 無料강습회

CBS교육국 기독교방송국은 기타 무료강습회를 초등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접수마감은 오는 4월 5일까지며 문의처는 전화 ㉔6161。

漫畫記者의 辯

피사리君

李允圭

「피사리」는 東國의 더듬이 남보다 내 잘못 發見위해

사치스런 내화보다는 좀 더 산다는 사실에 심각해져보고 싶습니다. 피사리는 항상 우울해져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심정입니다.

왜, 왜 주인공의 이름이 하필이면 「피사리」냐고 물어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라미 +송사리=피사리 라고 하면별 싱거운 수작이냐고 웃으시겠지요。 이건 어감그대로 느껴진다는 말이고 눈에서 피를 제거해는 作業을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던데요. 大學人 지성인이라고요? 거만할 수있는 것은 젊은이뿐이라고요? 글쎄요… 그건 당신의 생각속의 이야기지 당신의 행동의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매일 세끼를 축낸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제 나름대로 뛰기 있다고비 들거리는 우리들이라고하면 역겹게 들릴까요?

서도 두려워하는 피사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사리」君이 東國人의 더듬이로 될 수 있게많이 도와 주십시오。 「피사리」속에서 남보다는내 잘못을 발견하고 이제서 작입니다.

<文理大·國文科>

辯

피사리君

辯지 쓰라고합니다。 그냥 슬그머니 얘기하려 했는데。

언제나 양미간을 찌푸리고 양미간을 늘어드린채 학교, 그리고 주위를 더듬어를 읽어버린 몬눈 배회하던 날들이었습니다. 大學生活이란 이렇게 꼿이라고 단정지을수 없었어도 주위엔 나를 쓰라고합니다。

우리의 주위에었는 모든 것은 現實속에 뿌리 채로 뽑시도 우리의 것을 은 · 깊었던 것 같다. 「깊」 저울이 지닌 뛰에는 분이 온다는 는 오직 하나의 眞理만 생각하고, 붙을 기다린다는 내성도많고 무슨 일 · 이 · 있는 · 것 · 이 · 아 · 니 · 라 · 고 · 믿 · 는 · 것 · 이 · 다 · 。 · 그 · 러 · 나 · 우 · 리 · 는 · 진 · 리 · 를 · 찾 · 기 · 위 · 해 · 서 · 는 · 먼 · 저 · 의 · 眞理를 · 찾 · 아 · 야 · 하 · 기 · 때 · 문 · 에 · 더 · 욱 · 우 · 리 · 의 · 價値를 · 빛 · 낼 · 수 · 있 · 을 · 지 · 도 · 모 · 른 · 다 · 。 · 단 · 한 · 번 · 의 · 試驗에 · 우 · 리 · 의 · 人 · 生 · 全 · 體 · 를 · 건 · 는 · 것 · 은 · 물 · 시 · 도 · 어 · 리 · 석 · 은 · 일 · 이 · 다 · 。

우리는 젊다。 지금부터 젊은 것이다。 우리의 長點은 無限한 期待와 希望에서 自負를 無窮하게 開拓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 장점대 어둠이 비록 찬란한 光明을 이끌어 준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우리의 길에 희미한 빛을 밝히고 있음은 틀림없다。 지금의우리는 現實을 덮어둘 수 있다。 우리의 참된 理想이 부엉인가를 알아내어

우리의 理想을 向한 前進만이 있을뿐입니다。

우리는 無에서부터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勇氣 去以外의 어느것도 없는 것이다。 오로지 現在와 未來에 대한 푸른 꿈만이 展開될 뿐이다.

우리가 근본적인 밑바탕 위에 서서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이 자신의 밑바탕에서 새로운 출발을 선정할수 있는것이다。 음악 · 미술 · 문학 · 등 · 모 · 든 · 것 · 은 · 우 · 리 · 의 · 삶 · 의 · 한 · 부 · 분 · 이 · 다 · 。 · 그 · 것 · 은 · 우 · 리 · 의 · 삶 · 을 · 떠 · 나 · 서 · 는 · 아 · 무 · 것 · 도 · 아 · 니 · 다 · 。 · 그 · 것 · 은 · 우 · 리 · 의 · 삶 · 을 · 위 · 해 · 서 · 만 · 존 · 재 · 할 · 수 · 있 · 다 · 。 · 그 · 것 · 은 · 우 · 리 · 의 · 삶 · 을 · 위 · 해 · 서 · 만 · 존 · 재 · 할 · 수 · 있 · 다 · 。

우리는 校庭에는 높고깊은 哲學이 자라고 우리의 상가는 이야기인文學이 자라며 모든 學問이 독특한 색깔로 무성한 종말을 이뤘다。 남, 아니 우리 모두는 젊은 感覺으로 이런 학문이 풍기는 향기를 쫓아 자기고유의 향기로 만들어야겠다. 모든게 싱그럽다。

〈文理大·史學科〉

메아리

▲미팅을 「만남」 「빙」 「비포어 미팅」 「에이다。 만남다는뜻 프랑 「미팅」 「팁 미팅」 「밥결미팅」 「팁 미팅」을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 헤어지는 순간 돌아 만남을 「고고미팅」 「고고미팅에서 것이 野外미팅, 「랩뉴그 미팅」이다。 「랩뉴그 미팅」은 「미 미팅」과 형태 유사하여 행해진다。

▲대체로 만남을 喜·悲 · 어느 만나지를 낳 · 에서말하는 和音과 不協和音의 관계랄까? 대개 「에프터」가 성공했을법 和音의 관계, 실패했을 때 不協和音의 관계랄 成立한다。 아니 이 보다 클 · 원신 · 더 · 이 전에 和音 · 不協和 · 음 · 을 · 섭 · 렵 · 할 · 수 · 있 · 는 · 것 · 이 · 다 · 。 · 물 · 이 · 단 · 한 · 나 · 의 · 세 · 계 · 를 · 창 · 조 · 하 · 는 · 것 · 과 · 같 · 이 · 우 · 리 · 는 · 단 · 하 · 나 · 의 · 만 · 남 · 에 · 서 · 새 · 로 · 운 · 인 · 생 · 의 · 첫 · 걸 · 음 · 을 · 시 · 작 · 해 · 야 · 한 · 다 · 。 · 물 · 이 · 언 · 제 · 나 · 새 · 로 · 운 · 것 · 과 · 같 · 이 · 우 · 리 · 는 · 단 · 하 · 나 · 의 · 만 · 남 · 을 · 가 · 지 · 고 · 그 · 것 · 을 · 이 · 어 · 가 · 야 · 한 · 다 · 。 · 그 · 것 · 은 · 우 · 리 · 의 · 삶 · 이 · 다 · 。 · 만 · 남 · 은 · 기 · 다 · 림 · 과 · 희 · 망 · 을 · 가 · 지 · 고 · 찾 · 아 · 온 · 것 · 같 · 다 · 。 · 내 · 나 · 름 · 대 · 로 · 느 · 끼 · 낀 · 확 · 정 · 을 · 극 · 복 · 하 · 게 · 교 · 양 · 학 · 부 · 시 · 절 · 이 · 었 · 고 · 나 · 의 · 꿈 · 을 · 펼 · 쳐 · 발 · 수 · 있 · 었 · 던 · 의 · 미 · 를 · 배 · 운 · 게 · 모 · 한 · 교 · 양 · 학 · 부 · 시 · 절 · 이 · 었 · 다 · 。

만남의 論理

▲만남 · 만남다는 기대와 호기심 때문이다。 大學에 갓 입학한 프레쉬맨들은 갖가지 색상으로 다듬어진 티셔츠를 보고 우선 호기심을 갖는다。 티셔츠 사는데 지불한 돈가만큼 기대를 갖고 그날을 기다린다。 분명히 누가 뭐라해도 「만남에지는만남」이다。

미팅의 機相도 여러가지다。 미팅이 해가 갈수록 진전해가는가 方式이 다양해졌다。 이젠 대학생들의 만남이 단순하지않다。 오히려 단순하고 자연스런 만남이 더 절약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大學生그룹이야말로 「만남」의 스텐 「만남」도 「에이전」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만남」뒤엔 쓸쓸함이었는가 보다。

人間의 소리

Die Stimme des Menschen ●閔丙山 譯 ●第二次世界大戰 戰沒者手記●近刊豫定

世界名隨筆選

張伯逸 編輯●世界의 珠玉과 같은 수필을 精選●近刊豫定

裸者와 死者

THE Naked and the Dead 노만 메일러作 ●安東林 譯●〈上〉〈下〉 2卷近刊豫定

玄岩文藝新書

張吉山 軍廉大部

黃晳暎 作●第一部〈上〉〈下〉 2卷●近刊豫定●「한국일보」 連載中 單行本 계속 出刊!

玄岩社

信義洞 新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⑤6141 玄岩빌딩 ⑤6142 編輯 ⑤6143 經理 ⑤6144 社長 ⑤6145 對替口座 509877

*견줄 데 없이 값비싼 著者의 勞苦와 보통 圖書의 3倍에 達하는 編輯·校正·製作期間을 거쳐 獨創的이고 誠實하게 엮어진 책의 眞珠!

玄岩新書

*東西古典의 現代化와 最新知識의 体系化!

①韓國人 尹泰林 著 값1,200원	②韓國學 東亞文化硏究所 編 값1,500원	③牧民心書 丁若鏞 著/李乙浩 譯 값1,200원	④栗谷의 思想 李儁浩 編譯 값1,200원
⑤懲毖錄 柳成龍 著/南晩星 譯 값1,200원	⑥明心寶鑑 李東歡 譯註 값1,100원	⑦코리언스케치 게일著/張文平 譯 값1,100원	⑧新譯莊子 安東林 譯註 값1,200원
⑨佛敎槪論 李元燮 譯 값1,200원	⑩社會科學의方法論 李奎浩 等著 값1,200원	⑪文章의 技術 朴木月 著 값1,200원	⑫文學을 찾아서 崔仁勳 著 값1,200원
⑬性과 知性 월슨著/張文平 譯 값900원	⑭人生論 톨스토이 著 값900원	⑮相對性原理 제임스·코울먼 著 값1,000원	⑯核戰爭 R·랩著/表文台 譯 값1,000원
⑰未來學 香山健一 著 값850원	⑱孔子의 思想 林語堂 著 값1,200원	⑲釋迦의生涯와思想 朴敬勛 譯 값1,100원	⑳實學思想의 探究 高麗大亞硏 編 값1,200원
㉑法句經 金達鎭 譯 값1,200원	㉒唐詩 李元燮 譯註 값1,200원	㉓新譯墨子 李元燮 譯註 값1,000원	㉔青年文化論 李覺淳 編輯 값1,000원
㉕茶山學의理解 李乙浩 著 값1,000원	㉖韓國의思想家12人 申一澈 等著 값1,500원	㉗禪詩 鄭智賢 編譯 값1,200원	㉘哲學의즐거움 두란트 著 값1,000원
㉙文心雕龍 崔信浩 譯註 값1,500원	㉚退溪의自省錄 尹絲淳 譯註 ●近刊	㉛藝術哲學 올드리치 著/金文煥 譯 값1,200원	㉜現代中國의理解 崔明 著 값1,500원
㉝秋史集 崔完秀 譯註 ●近刊	㉞精神力의奇蹟 카스트 著 값1,200원	㉟隨筆의理解 張伯逸 著 ●近刊	㊱新譯荀子 尹五榮 譯註 ●近刊
㊲韓非子 南晩星 譯註 ●近刊	㊳孫子兵法 南晩星 譯註 값1,200원	㊴萊根譚 趙芝薰 譯註 값1,200원	㊵經濟學批判 뮈르달著 ●近刊

*愛讀者 (HABC會員) 100人 추첨, 購讀謝恩!

●玄岩社에서 刊行하고 있는 〈玄岩新書〉 〈玄岩文藝新書〉에 挿入되어 있는 HABC會員엽서를 기재하시어 우체통에 넣어시기만 하면 本社로 送付됩니다.

●오는 3月15日부터 5月15日까지 本社에 도착한 HABC會員엽서를 모아서 엄정 추첨을 實施, 100人의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당첨된 100人의 愛讀者에게는 〈玄岩新書〉 〈玄岩文藝新書〉중에서 당첨자가 願하는 圖書 1卷을 등기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5月20日 추첨을 實施하여, 그 결과를 즉시 당첨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드립니다. 이미, 그동안 보내주신 HABC會員도 이번 기간에 추첨을 實施합니다.

●全 HABC會員(HYEON-AM BOOK CLUB)에게 讀書情報敎養誌를 特別配布 豫定!